

조정석×신세경 멜로 사극 온다

tvN 드라마 '세작, 매혹된 자들' 21일 첫 방송



조선시대 배경 임금과 첩자의 사랑
조정석·신세경 "만점 호흡"
16부작 촬영 마쳐...주말 2회 방송

"신세경씨와 멜로 호흡이요? 10점 만점으로 했을 때 11점입니다."

배우 조정석과 신세경의 새 가상 사극 로맨스 드라마 '세작, 매혹된 자들' (이하 '세작·사진')이 오는 21일 첫 방송을 앞두고 연기 호흡을 자랑했다.

조정석은 1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tvN '세작' 제작발표회에서 상대역인 신세경과의 호흡이 몇 점인지 묻는 말에 "10점 만점에 11점"이라고 대답했다.

같은 질문을 받은 신세경은 조정석과 동시에 "천점"이라고 대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신세경은 황급히 "저는 천 점만 점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조정석은 "신세경이라는 배우와 호흡을 맞추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주변에 많이 얘기해왔다"며 "호흡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정도로 너무 좋았다"고 강조했다. '세작'은 조선시대 왕 이인(조정석)과 그에게 복수

하려고다가간 세작(첩자) 강희수(신세경)가 서로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다룬 로맨스 드라마다.

이인은 왕의 동생이란 이유로 청나라에 인질로 끌려갔으나 도리어 적국에 협력했다고 의심받는 불행한 과정을 겪는 인물로 그려진다. 강희수는 '내기바둑꾼'으로 명성을 떨쳤다가 세작으로 활

동하는 인물이다. 신세경은 "중후반부에 이르러 희수의 감정이 항상 갈등하고, 내적으로 표정과 다른 생각을 하는 장면들이 많다"며 "연기할 때 고민이 많았는데 현장에서 너무나 섬세하게 배려해주셔서 연기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정석은 "이인과 강희수의 사랑은 항상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하는, 날이 서 있는 사랑이어서 연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세작'은 드라마 '모범형사' (2020), '언터처블' (2017)의 조남국 감독이 연출하고 '왕이 된 남자' (2019)의 김선덕 작가가 각본을 썼다. 16부작인 '세작'은 지난해 말 촬영을 마치고 이달 21일 9시 20분 1·2회가 연속 방송된다. 첫 방송 이후에는 매주 토·일요일 방송된다. /연합뉴스



아이유 '월드투어'

3월부터 요코하마·LA 등 18개 도시

가수 아이유(사진)가 월드투어에 나선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가 오는 3월 서울을 시작으로 월드투어 'H.E.R.'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과 일본 요코하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독일 베를린,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 18개 도시에서 콘서트가 열린다.

2019년 아이유의 아시아투어 '러브, 포엠' (Love, Poem) 이후 약 5년 만의 국내 투어로 서울 공연은 오는 3월 2·3일과 9·10일 열린다.

공연 날짜 이외의 상세한 정보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아이유의 신곡 '러브 윈스' (Love Wins)는 오는 24일 발매된다. /연합뉴스

"보이스피싱범 소탕하러 함께 가시죠"

24일 개봉 영화 '시민덕희' 라미란

사기 당한 주부, 조직 내부자료 경찰에 제보해 총책 잡는 실화 그려

슈퍼맨도, 원더우먼도 아니다. 그저 두 아이를 키우면서 세탁 공장에서 일하는 대한민국의 중년 여성이다. 오는 24일 개봉하는 영화 '시민덕희'는 그렇게 지극히 평범한 사람 덕희를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덕희가 중국으로 건너가 범죄 조직의 보스를 잡는다는 게 이 영화의 줄거리다.

덕희 역을 맡은 배우 라미란은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을 연기하는 데 자기만 한 사람이 또 있겠냐고 했다.

"덕희는 너무 평범하고 정말 이웃에 있을 법한 인물 이잖아요. 제가 가장 비슷하지 않나요? 다른 분들(배우들)은 너무 예쁘잖아요."

16일 서울 삼성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라미란은 이렇게 말하며 웃었다. 그는 "관객들도 나를 평범함의 대명사처럼 봐주시는 것 같다"며 "내가 실제로도 그렇다(평범하다)"고 말했다.

영화 속 덕희가 평범한 사람이긴 하지만, 비범한 일을 해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또한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진 자존감을 지킨 결과로 보아야, 남다른 시

민 의식 같은 걸 발휘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게 라미란의 설명이다. 그는 "덕희가 영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영화는 히어로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의 자존(自尊)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시민덕희'에는 덕희가 보이스피싱 조직 보스에게 흡신 두들겨 맞는 장면이 나온다. 라미란은 온몸을 던진 듯 연기한다.

덕희는 싸움도 할 줄 몰라 얼굴이 엉망이 될 만큼 맞지만,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약자가 자기를 지키는 모습인지도 모른다. 강자가 약자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도 이런 때일 것이다.

"내가 맞아도 고개를 숙일 순 없었죠. 내가 왜? 그렇게 덕희도 고개를 뺏뺏이 쳐들고 밖으로 나오잖아요. 전 그런 덕희가 그저 좋아했어요."

그렇게 '시민덕희'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댈 곳 없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한다.

'시민덕희'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기도 화성의 한 중년 여성 김모 씨가 2016년 보이스피싱 조직 내부자료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해 조직 총책을 불



배우 라미란

잡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실화를 토대로 했다.

영화 속 덕희는 경찰에 제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근거지인 중국 칭다오로 건너간다. 세탁 공장 동료 봉림(염혜란)과 숙자(장윤주), 봉림의 동생 애림(안은진)이 함께한다.

라미란은 "내가 덕희라면 경찰에 제보까지는 해도 다음 단계(중국 입국)까지는 못 갔을 것 같다"면서도 "인생의 어떤 마다든 골목에 몰린다면 나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했다. /연합뉴스

26년 '세상에 이런일이' 존폐 기로

SBS 폐지 검토...PD들 반대 성명

26년째 방송되고 있는 SBS의 장수 시사교양 프로그램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이하 '세상에 이런일이')가 폐지 기로에 놓였다.

SBS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세상에 이런일이' 폐지 여부 등을 다각도로 논의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세상에 이런일이'는 1998년 5월 처음 방송됐다. 제목처럼 신기한 사람이나 사건을 소개해 웃음과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방송인 임성훈과 배우 박소현이 방송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메인 MC를 맡고 있으며 두 사람은 2018년 9월 1000회를 맞이해 SBS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SBS는 프로그램이 오래된 인상을 주고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세상에 이런일이'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상에 이런일이'의 시청률은 최근 2%대를 기록 중이며 올해 최고치는 3.4%다.

시사교양본부 소속 PD들은 SBS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세상에 이런일이'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PD들은 "지난 12일 열린 시사교양본부 정기 회의에서야 시사교양국장에게서 공식적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며 "본부의 입장은 프로그램 폐지를 반대하고 시간대 이동을 요청한다는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힘을 모아 '세상에 이런일이'를 지켜야 할 때"라며 "본부장과 국장, CP(책임프로듀서)들은 시사교양본부의 상징과 같은 이 프로그램 폐지를 막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